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참고자료**	http//www.mke.go.kr

2010년 12월 17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자정보산업과 조영신 과장(2110-5671), 문준선 사무관(2110-5672)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 수립

- 2015년, 수출 3억불 달성, 일자리 1만 4천개 창출 -

- IT전체 R&D의 10%까지 R&D투자 확대, 신규 공공수요 4,000억원 창출 -

□ 지식경제부는 **연평도 해안포 공격으로 사이버 관심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12.17일(금), **안현호 차관 주재로 「정보보안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 날 행사에는 안철수연구소, 이글루소프트 등 주요업계 대표, 행안부 강성주 국장, 대검 안성수 부장검사 등 관계부처 공무원,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주대준 KAIST 부총장,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음

□ 안현호 차관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정보보안 산업은 그 자체로도 시장규모가 큰 산업**일 뿐만 아니라, **他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 인프라 산업**이라고 평가하였음

* 정보보안 시장규모는 549억불로, 메모리 반도체(542억불)보다 큰 시장('08)

○ 특히, 정보보안 산업은 초고속통신망 등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고, 인터넷 뱅킹 등 금융거래 안정화 실현에 기여하며, 스마트폰, 스마트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핵심 산업이라고 지적

□ '90년대 유망 벤처기업 탄생과 V3 등 우수한 제품 출시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자국기업이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국가로 성장**했으나,

○ 닷컴 붕괴 이후 벤처의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이 약해지고, 신규창업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 최근 3년내('07-'09) 신규 창업은 6개사에 불과('01~'03년 27개사, '04~'06년 17개사)

○ 브랜드 인지도 부족, 현지 서비스 체계 미흡으로 **수출은 생산액의 5.5% 수준인 440억원('09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안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내수중심에서 수출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인력·기술·제도·조직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활력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안현호 차관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경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은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지식경제부는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정보보안산업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15년까지 수출 3억불 달성, 1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법·제도 정비, 공공시장 창출, 기반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정보보안 리더 양성, R&D 투자확대 및 성과제고, 해외 정보보안 시장개척**을 추진하기로 함

[단기 대책]

□ 첫째, 기존의 **행정 편의적인 법·제도를 기업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함

○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자발적 정보보안 정보공개사업 추진, 정보보안 적정 유지보수요율 준수, 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유효기간 폐지(기존 3년), CC-GS 동시 획득시 소요비용의 10% 감액 등임

□ 둘째, 시장이 성장세에 있고, 글로벌 기업이 아직 장악하지 못한 **신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 디지털 포렌식, 보안관제, DDos, 개인정보보호, 융합보안 등 **5대 분야에 약 4,000억원 규모의 신규 공공수요를 창출**하여 국내기업이 경험을 쌓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

<공공시장 창출계획>

분야	시장창출 규모
디지털 포렌식 시장	○ 검찰 디지털수사망구축사업 등 647억원 규모
보안관제 시장	○ 보안관제 센터구축 등 1,923억원 규모
DDos 시장	○ DDos 긴급 대피소 구축사업 등 292억원 규모
개인정보보호 시장	○ 개인정보 암호화 사업 등 587억원 규모
융합보안 시장	○ 스마트워크 센터구축 등 470억원 규모

○ 또한 공공시장 창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안부, 방통위, 대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법제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 셋째, 공공기관, 산업 진흥기관, 민간 협·단체 등 정보보안 산업 관련 기관의 조직·인력 강화하기 위하여,

○ **공공기관 정보보안책임관 지정 및 전담조직 확충**,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석사과정 개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산업정책팀 신설, **지식정보보안산업인의 날 제정**, 유공자 포상훈격 격상(장관급 표창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추진하기로 함

[중장기 대책]

□ 첫째,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진 차세대 CEO인재 200명 양성 및 **산업체 핵심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확대,**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이버 보안연구센터 설립, 정보보호전문가자격의 국가공인자격증 격상, 대학생 군복무 연계를 위한 **사이버 병과 신설 추진**

□ 둘째, 국내 정보보안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 **'15년까지 정보보안 R&D 투자를 IT 전체 R&D투자의 10%까지 확대**,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설, 정보보안 기술이전행사 개최, 시큐어 코딩제 도입 검토, Test Bed 확대 구축 등을 추진

□ 셋째, 정보보안 산업 성장 패러다임을 **기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일본·동남아·중동을 3대 수출권역**으로 선정, 일본 유통채널 연계 수출지원 사업 추진, SI 대기업-정보보안 중소기업 공동 동남아 전자정부 타당성조사, 중동 정보보안 협력 MOU체결 등 추진

○ 또한, 기업 수준에 맞는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정보보안 수출멘토 지정, 정보보안 시장분석팀 신설**, 해외 전시회 참가확대, 국가별 수출 협의체 구성, 민간 협·단체간 국제교류 후원 등을 추진

□ 끝으로 안현호 차관은 마무리 말씀에서,

○ 정보보안과 같은 지식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 앞으로, 기존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이 확산되면 정보보안 산업의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되고 시장기회도 많아질 것이라 전망

○ 정부는 정보보안과 타 산업간 융합 등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에는 **정보보안 융합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Ⅰ 업계 간담회 개요

1. 간담회 개요

○ 일시/ 장소 : ‘10.12.17(금) 11:30～13:00, 르네상스호텔 제이드룸(4층)

○ 참석자

- 정부 : 차관님,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조영신 전자정보산업과장, 행안부 강성주 국장, 대검 안성수 부장검사, 국방부 최인종 팀장
- 업계 : 슈프리마, 안철수연구소, 시큐아이 등 업계 10명
- 유관기관 :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장, 주대준 KAIST 부총장, 박창섭 정보보호학회 부회장, 이경구 인터넷진흥원 본부장, 황승구 ETRI 부장

○ 논의내용

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및 토론
② 정보보안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2. 간담회 일정

시 간	소요시간	주요내용	비고
11:30～11:35	(5분)	**인사말씀**	차관님
11:35～11:45	(10분)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자정보산업과장
11:45～12:45	(60분)	**오찬 및 자유토론**	참석자
12:45～12:50	(5분)	**마무리말씀**	차관님
12:50～13:00	(10분)	**기념촬영**	참석자

Ⅱ 참석자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정부 (6)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조영신	지식경제부	전자정보산업과장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국장
	안성수	대검찰청	부장검사
	최인종	국방부	정보보호팀장
기업 (10)	**안창수**	시큐아이닷컴	대표이사
	김대연	나우콤	대표이사
	신수정	인포섹	대표이사
	오치영	지란지교소프트	대표이사
	이재원	슈프리마	대표이사
	손삼수	웨어밸리	대표이사
	박동훈	닉스테크	대표이사
	심종헌	유넷시스템	대표이사
	조동수	안철수연구소	전무
	박원규	소프트포럼	전무
유관기관 (6)	**이경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박창섭	한국정보보호학회	부회장
	이득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회장
	이기영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주대준	KAIST	부총장
	황승구	ETRI	소장